

숲의 도시 나는 안산에 산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 453호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꽃가에 바람이 스칠 때,
그때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게.



02.03.04

세월호 참사 4주기

4.16생명안전공원은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된다.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

- 문재인 대통령 -

08

안산 착한가게 시리즈

- 광주식당 - 주재료는 산지에서 직접 조달
- 월드세탁 - 진짜 착한 세탁소
- 고기마을 - 생삼겹에 함초가루 듬뿍
- 칠갑산 - 대부도 칼국수 부럽지 않은 맛

11

미술도시 안산

안산 대표 미술가 '장미화가 성백주'
안산을 대표하는 현대화가 성백주 화백을 만나 살아온 이야기와 작품 이야기를 들었다.

12.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8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 일대에서 열린다.



화랑유원지 추모공간 조성을 약속하고
지난 4월 16일 세월호참사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 story.kakao.com/ch/ansancity | blog.naver.com/cityansan |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8년 4월 25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세월호 참사 4주기 정부 합동 영결 · 추도식, 진실의 봄을 약속하며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염원은 못한 부모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렴.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어 너희들이 꿈꾸었던 곳으로 가거라. 컵가에 바람이 스칠 때, 그때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게. 사랑한다.”

지난 4월 16일 화랑유원지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엄수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차분하게 추도사를 낭독하던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그토록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참사 이후 매년 진행된 세월호 행사 때마다 늘 단단한 모습을 유지하던 전 위원장마저 울먹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영결식이 가족들에게 주는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영결식은 남아있는 자들이 죽은 이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떠나보내는 의식이다. 상복을 입고 다시 영정을 받아든 유가족들의 시간과 마음은 4년 전 그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나 구조하지 않은 이유, 책임자 처벌 등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영결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다. 특히 수학여행 갔던 250명의 아이들이 구조되지 못한채 눈앞에서 수장되는 장면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 가슴에 이별의 기한이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지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참사 이후 1462일 만에 정부에서 주관한 영결·추도식에서 4년간 합동분향소 안에 있던 261위의 영정과 위패가 밖으로 나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았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전국에서 모인 6천여 명의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배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며,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내고,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4.16생명안전공원은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된다.”며,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표로 조사(弔詞)를 하게 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6일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의 하나”로 정의하며,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한 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족 대표 추도사를 낭독한 전명선 위원장은 “영결·추도식은 끝이 아니라 첫 시작에 불과

하다”며,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져 침몰과 구조관계의 원인을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원고 희생자 지현 양의 언니 남서현 씨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란 말은 다 거짓말 같아. 사고가 나고 정신과 박사님은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 같아.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 평범한 어느 날 너를 떠나보내야 했고, 원치 않았지만 너의 교실을 내 손으로 옮겨야 했고, 너와 친구들을 이곳에 데려오려면 너를 그만 보내줘야 한데, 가슴이 너무 저러다... 4년 동안 언니의 온 세상은 너였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너와 함께한 17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덜 미안했을까.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막내.” 남서현 씨가 울먹이며 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전할 때 함께한 추모객들도 흐느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지도자들은 차례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 기억과 진실을 다짐하는 조가와 추도시가 추모객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대표와 유가족들, 추모객들 순으로 헌화와 분향의 시간이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영정 앞에 가까이 다가가 자 참여했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해질 무렵까지 추모객들의 헌화가 이어진 후, 마지막으로 영정과 위패를 건네받은 부모들은 마치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영정을 어루만지고 뺨을 부비며 허탈한 표정으로 간신히 걸음을 옮겼다.

영결·추도식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기금 합동분향소를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 영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철거된다고 생각하니 혹시라도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질까 걱정도 된다.”며, “오늘 영결식을 가슴에 담고 세월호 참사를 잊을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마음속에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객을 맞이온 정부합동분향소는 이번 정부합동영결·추도식을 끝으로 4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세월호 참사 13일 만인 2014년 4월 29일 화랑유원지 제 2주차장에 세워졌던 합동분향소를 4년간 방문한 추모객은 총 73만여 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비극의 현장이었던 합동분향소는 이달 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된다.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다.

- 문재인 대통령 -

세월호 특별전 ‘결’

참사 이후 4년, 마음을 내주던 결들의 이야기



◆◆◆ <결:세월호 그 곁에선 사람들> : 2018. 4.14~16. / 화랑유원지

얼마나 가까워야 우리는 누군가를 ‘결’에 있다고 부를 수 있을까. 세월호 특별전 ‘결’은 마음이 닿았던 모든 존재들을 ‘결’이라 부른다. 피켓과 촛불을 들고 함께하지 못했어도, 분향소에 가보지 못했어도, 세월호를 지켜보며 함께 아파해 준 모두의 마음이 ‘결’이었다 위로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될까 두려워 조금 망설이고 있었을 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도 다 결’이라고... ‘결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라고 말한다. 비가 내린 화랑유원지 전시장에서 그런 ‘결’들의 웅성거림이 작은 천막을 에워쌌다.

세월호 특별전시 ‘결’은 참사이후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고 마음을 내주었던 수많은 ‘결’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동안 함께 해 주었던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세월호 참사이후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던 고통스런 숫자를

지켜보던 67일간의 타임라인은 급박하게 돌아갔던 안산 시민들의 상황과 대응, 그 시간을 겪어내던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이어져 4년 전의 아픔과 연대를 다시 기억나게 했다. 김송미 씨는 참사 전날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법을 알려주던 단원고 학생을 다음날 영영 볼 수 없게 됐고, 송승연 씨는 이웃의 아이가 그 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워 지하철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김복순 씨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엄청난 양의 달걀을 집에서 삶아 나눴고, 신대광 교사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눴던 많은 시민들이 있었다. 광화문에서는 밤새 만든 노란 리본을 캐나다에 보냈고, 제주도에선 아무 연구도 없던 이들이 관계는 그물코 같다는 생각 하나로 ‘기억공간 Re:born’을 만들어 함께 기억하고 공감했다. 참사 이후 충격으로 집밖에도 못 나오던 이들이 사람들 곁에서 함께 행진을 했고, 차에 붙여진 노란리본과 가슴에 달린 노란 배지 하나에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감사했다.

세월호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 487만 7천 979명,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 다녀간 사람들 72만 7천 22명 등 인포그래픽에 숫자 ‘1’로 표현된 결들의 작은 수고가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서로의 희망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손때 묻은 노란팔찌와 세월호를 생각하며 그렸던 그림, 도보행진에 사용했던 보자기 등 그때 마음을 기억나게 만드는 물품들이 작은 역사를 이루며 전시장을 채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람객들이 ‘결’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엽서에 적었다. ‘매번 찾아왔었어. 이제 마지막 분향이네. 늘 미안해. 잊지 않을게.’ 매서운 바람에 울컥 눈물이 나올 거 같은 4월의 안산, ‘결’들의 목소리를 오래 기억해본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세월호 엄마들의 연극무대로 시작한 ‘4월 연극제’

공동체와 위로, 청소년들의 꿈을 생각하다

◆◆◆ 4월 연극제 : 2018.4.3.~22.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여섯 편의 노란색 공연

네 번째 4·16을 맞는 안산의 봄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4월 연극제’로 시작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4월 연극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고민을 연극을 통해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월호 프로젝트로 뜻을 모은 세월호 가족극단을 포함한 안산의 극단들이 풀어놓은 공동체와 위로, 청소년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4월의 안산을 어루만졌다. 그 시작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생존자 엄마들의 연극무대였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는 극단 결판의 작품에 세월호 가족 이야기를 추가해 각색한 연극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맞닥뜨렸을 상처와 고립을 한 연립주택에 사는 다양한 이웃들의 이야기로 묘사하면서 유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의 존재에 대한 희망을 전하다. 너무 아프고 어려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피하던 이웃, 출처를 알 수 없는 카톡 내용을 믿고 수군거리던 이웃의 말과 태도를 연기할 때, 엄마들은 지난 4년간 마음 한편에 담아둔 고통을 아프게 꺼내놓는다. ‘누구는 갑자기 돈벼락 맞게 생겼네’ 등 아픈 대사를 연기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던 입술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 말해준다. 밥 한 끼,

탁주 한 사발의 위로가 세월호 가족들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벚꽃이 피던 4월, 엄마들이 가장 견뎌내기 힘든 계절에 안산에서 시작한 연극은 유독 여러 가지 상념에 젖게 했다. 극중 단원고 교복을 입은 딸아이가 엄마와 함께 보내던 사소한 일상 장면이 나오거나, 교복을 입은 배우들이 위로의 노래를 불러줄 때, 엄마들의 시선은 지금은 만질 수도 없는 아이들이 떠오르는지 먼 곳에 한참을 머물렀다. 그렇게 배우들의 표정까지 느낄 수 있던 작은 무대가 끝나고 나니 관객석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다른 공연장에서는 볼 수 없는 배우와 관객들의 오랜 포옹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밥 한 끼 꼭 같이해요”라는 대화들이 연극의 여운처럼 이어졌다.

이밖에도 4월 연극제는 극단 창세의 ‘우리의 아픔다웠던 날들에 관하여’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과거가 아닌 현재 개인의 기억으로 확장시키며 관객들이 세월호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을 연출했다. 또, 극단 동네풍경은 ‘스프링 어드벤처 온라인’에서 참사이후 청소년들이 잃어버린 평범한 꿈을 재조명하며 세월호 이후의 삶과 기억,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4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던 세월호 참사의 상처들을 보듬었던 시간, 여섯 편의 연극 속에서 4·16이후 새로운 가치의 공동체를 그려본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노란 바람개비가 불려온 기억과 희망의 바람 거리에서 기억하다

◆◆◆ 거리에서 기억하다 : 2018.4.14.~16.(고잔역-4.16기억교실-단원고-화랑유원지)

고잔역에 내리자마자 노란 파라솔이 반겼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노란리본과 기억 배지를 시민들에게 나누며 '기억과 약속의 길'을 알리는 부스였다. 길 안내를 받으며, 노란 풍선들이 종이배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일러스트 배지를 받았다. 거리를 지나던 중학생 딸과 아버지도 건네받은 배지를 지하도 계단에 서서 조심스럽게 옷깃에 달았다. 그 작은 행위가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져 한참을 바라봤다.

고잔역에서 4.16기억교실을 지나 단원고를 거쳐 화랑유원지까지 이어진 '기억과 약속의 길'에는 가로수마다 노란나비가 휘날렸고, 거리에는 노란 바람개비를 손에 든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던 행사 기간 내내 실에 매달린 나비는 오래도록 하늘을 날았고, 바람개비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4.16기억교실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기억교실은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생활하던 교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곳. 어느새 4년이 흘렀지만 2014

년 4월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자리가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화장기 없는 앳된 소녀는 아직도 말갈게 웃고 있는데, 어느새 그 아이의 친구들은 입술과 볼이 빨간 22살 아가씨가 되어 친구를 다시 찾아왔다. 보고 싶던 친구의 책상에 둘러서서 이런저런 추억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그리고 어쩐지 친구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만 같은 의자에 앉아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뒀던 말들을 메모지에 오래도록 적는다. 오랜만에 다정한 친구들의 음성이 속삭이던 교실 창가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쳤다. '기억과 약속의 길' 마지막 목적지인 화랑유원지에 들어서자 호수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노란색 바람개비 수천 개가 방문한 시민들을 맞았다. 화랑유원지 캠핑장 옆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예정부지에 시민들이 꽃이놓은 '기억과 희망의 바람'을 상징하는 바람개비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벚꽃 잎들이 하늘에 휘날렸고, 수백 개 바람개비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소리가 호수에 울렸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그 많은 꿈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세월호 아이들의 '꿈' 전시

◆◆◆ 꿈 : 2018.4.14.~4.16.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화랑유원지 한쪽 편에서는 단원고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꿈'이 전시됐다. 커다란 파란 고래를 배경으로 251개의 모뎀에 그려진 아이들의 꿈은 알록달록 다채롭다. 요리사, 수의사, 뮤지컬배우, 디자이너 등등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만큼 생생한 수백 개의 꿈을 가만히 들여보고 있으니,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창의적인 고은이가 찍는 카메라에는 어떤 영상이 담겼을까. 악하고 따돌림 당하던 친구들 편에 서던 수정이는 어떤 뉴스를 취재했을까. 평화와 정의의 사랑했던 성호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을까? 끝내 오지 못할 미래를 수면 위로 비상하는 고래 등에 올려놓는다. 그 선한 꿈들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버텨낸 가족들의 지난 4년을 떠올려 본다.

전시장 한쪽 편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만든 박민선 씨의 퀼트작품도 전시됐다.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퀼트작품은 세월호 희생자 아이들의 꿈을 작은 소품과 이미지에 담아냈다. 다윤이의 유치원, 민석이의 경찰모자, 영만이의 로켓 등 250개의 빛나는 우주가 작가의 오랜 기도와 같은 바느질 속에 담겨 있다.



전시 마지막을 채운 것은 유가족들이 손수 만든 나비 모뎀이다. 색색의 꿈으로 빛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비와 함께 좋은 꿈을 꾸며 잠들길 바라는 엄마들의 마음이 땅과 하늘에서 모두 볼 수 있게 지면에 설치한 모뎀에 담겼다. '자장 자장 잘자라 우리아가. 좋은 꿈 꾸거라.' 세상을 꿈꾸던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들은 나비가 되는 꿈을 선물한다. 그곳에서는 나풀나풀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따뜻한 어느 봄날 우연처럼 꽃밭에서 다시 스쳐 갈 수 있기를, 손뜨개로 정성껏 만든 노란 나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발급

유족 및 가족 생활 편의 도모



안산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 발급사업을 시행했다.

또는 가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사용해 왔다. 확인서는 종이로 되어 있어 쉽게 구겨져 휴대가 어렵고 확인서를 사용하려고 해도 확인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여 여러모로 불편했다."며 "반영구적인 가족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높여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발급 대상자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단체 각 지부에서 할 수 있다. 혜택분야로는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과 체육시설, 화랑오토캠핑장 등의 시설 사용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3시간 이내 전액 감면 등이 포함된다.

최기문 안산시보훈단체연합회장은 "그동안 각종 시설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데 국가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는 유효기간(3년)내 갱신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안산시 관외로 전출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이 중지된다.

시 담당자는 "국가 유공자라도 분야별로 해당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훈단체 각 지회에서 꼭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6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소식通

민방위교육도 스마트 시대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안산시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만 여명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5월 23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버교육은 안산시 소속 민방위 대원으로 5년차 이상이면 누구나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 15개 과목으로 구성된 사이버교육은 지진, 화재, 풍수해, 전기안전 등 생활안전에 대한 상식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구성됐다. 교육이수 여부는 시청 각 교육 60분,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 합격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방법은 안산시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165)

단원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 실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전액 무료

안산시 단원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치매조기검진은 1차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를 선별하고, 인지저하 대상은 2차 진단검사 및 신경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3차 감별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단원치매안심센터 신경과전문의 상담은 매주 수요일(13:30~17:00)과 목요일(09:00~14:00)에 실시된다.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전액 무료이며, 감별검사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치매로 확진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치매치료비 및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품도 지원된다.

◇ 문의 : 단원치매안심센터(031-481-6547~6552)

"성차별상담센터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성평등 도시 공동체를 위한 열린 상담소



안산시청 1층에 위치한 '성차별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성차별과 아동·여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돕는 기관이다. 2001년 6월 문을 연 상담센터는 직장 내 성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

상담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남녀차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접수, 여성상담, 성매매 상담지원까지 성평등과 성피해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직접 방문해서 상담자와 마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기도 한다.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울 사이버상담센터도 운영 되고 있다.

상담센터는 상담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와 자존감의 회복을 돕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 쉼터 연계,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후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시간이 흐른 후에도 피해자의 안녕을 살핀다.

성 평등한 조직문화와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공공기관 및 관련시설,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인형극, 지역아동센터 대상 미디어바로보기교육, 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강유경 직원은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활발한 미투(Me Too)운동이나 성인지교육 등으로 평소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불편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의 변화로 성 평등한 지역 공동체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산시의 사업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성차별상담센터(031-481-2260)
(상담시간 9:00~14:00, 토·공휴일 제외)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미투(Me Too)운동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2017년 10월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하세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5월 31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 문의 : 상록구 세무1과(031-481-5194)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7)

문화재, 정원(庭園)을 품다

“어린이 · 청소년 · 어르신 정원사 문화유산 가치 느끼고 배워요!”



보이는 문화재에서 느끼는 문화재로

청문당,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안산읍성과 관아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안산의 문화재다. 안산시는 정원활동을 통해 선현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가깝게 느끼고 직접 가꾸보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문화재 정원(庭園)을 품다’를 마련했다.

‘전통가옥을 가꾸는 꼬마정원사’, ‘최용신을 닮은 청소년 정원사’, ‘세상을 바꾼 씨

앗, 성호를 닮은 청소년 정원사’, ‘역사마을 1번지 수암동을 가꾸는 실버정원사, 꼬마정원사’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어린이 · 청소년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각 월 1회씩 총 38회 진행 된다.

지난 4월 14일 성호기념관에서는 ‘세상을 바꾼 씨앗, 성호를 닮은 청소년 정원사’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참여 청소년 20명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기념관에 모여 사람, 자연을 중시했던 이익선생을 배운다. 직접 농사를 짓고 식물을 키웠던 선생을 따라 아이들은 정원활동을 한다. 이날은 허브식물 ‘라벤더’를 화분에 심고, 한 달 동안 잘 키워 친구들에게 라벤더 차 대접하기를 과제로 받았다. 한 학생은 “오늘은 이론 수업만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라벤더를 심게 돼서 놀랍고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의 정원 만들기, 게릴라 가드닝, 정원에서 만나는 경제, 정원 전시회, 정원사 직업탐구, 정원의 친구, 정원 프리마켓 등 10월까지 8회의 활동이 끝나면 성호기념관 입구 왼편에는 아이들의 손으로 조성한 기부정원이 자리하게 된다. 안산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재, 정원(庭園)을 품다 프로그램이 문화재를 단순히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역사적 가치를 배우고 느끼도록 도움을 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진국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체육 야간운동교실 운영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지켜요”



와동체육공원 · 시낭운동장 등 22개소에서 10월까지 진행

상록수 · 단원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4월초부터 10월말까지 관내 공원 및 운동장 등 22개소에서 야간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야간운동교실은 에어로빅, 스트레칭, 건강체조, 올바른 걷기 자세 등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 2~3회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며, 상록수 · 단원보건소, 안산시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와동체육공원, 시낭운동장 등 안산의 22개 공원과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은재(47세 · 와동)씨는 “공원에 산책 나왔다가 음악소리에 이끌려 야간운동교실에 참여하게 됐다.”며 “강사가 동작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진행해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했다.

야간운동교실에 참여하면 체력향상, 비만개선, 성인병증상 완화 등 긍정적 신체변화를 얻을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 손혜선 담당자는 “2017 건강체육 야간운동교실 결과를 보면 전년대비 1천 145명 늘어난 3만 4천 622명이 참여했고, 야간운동교실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4%

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답했다.”며 “건강체육 야간운동교실에서 주2~3회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시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야간운동교실은 당일 현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장소에 따라 운동하는 요일 및 시간이 다르므로 하단의 표를 참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단원구 (11개소)

장소	요일	운영시간	장소	요일	운영시간
관산운동장	화, 목	20:30~21:30	화정천	화, 목	20:30~21:30
와동체육공원	화, 목	20:30~21:30	둔배미공원	월, 수	20:00~21:00
민속공원	화, 목	20:00~21:00	다문화광장	월, 수	20:30~21:30
중앙공원	화, 목	20:00~21:00	문화광장	월, 수	20:00~21:00
별빛광장	화, 목	20:00~21:00	셋터공원	월, 수	20:00~21:00
풍경공원	화, 목	20:00~21:00			

상록구 (11개소)

장소	요일	운영시간	장소	요일	운영시간
성포공원	월, 수	20:00~21:00	호수공원	월, 수, 금	20:00~21:00
용하공원	월, 수	20:00~21:00	성호공원	화, 목	20:00~21:00
시낭운동장	월, 수	20:00~21:00	이동공원	화, 목	20:00~21:00
은하수공원	월, 수	20:00~21:00	반월공원	화, 목	20:00~21:00
감골운동장	월, 수	20:00~21:00	어울림공원	화, 목	20:00~21:00
노적봉폭포	월, 수	20:00~21:00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25) / 단원보건소(031-481-255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100세 시대, 일하면서 건강 지켜요”

안산실버인력뱅크, 자원봉사단과 시장형 사업단 운영

대한노인지회 안산상록구지회(지회장 최태옥) 안산실버인력뱅크는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인생 2막을 꿈꾸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민간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실버인력뱅크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안산시 노인인력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사업단 참여, 소득창출 활동 등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개소한 안산시노인자원봉사센터의 새 이름이다.

안산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교육과 봉사자 자조모임 등 자원봉사단의 조직화와 다양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의 안정적 수입구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급 봉사단은 노인시설 인력 파견, 안산천 지킴이, 평생교육시설 및 방과후 교실 파견 등의 활동을 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또바기’,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노노케어사업 ‘또래오래’ 등 공익형 사업과 맛사랑공사랑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콩두부사업’, 친환경 세차사업단의 ‘은빛세차사업단’ 등 시장형 사업이 운영

되고 있다.

실버인력뱅크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열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빛세차사업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윤식(71세), 박정숙(73세) 어르신은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딴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텐데, 함께 어울려 일하니 집에서 노는 거보다 훨씬 좋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실버인력뱅크에서 운영하는 은빛세차사업 ‘찾아가는 친환경손세차’는 초음파를 이용한 에어세차로 물을 거의 사용(물 50~100ml 미만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부·외부 세차는 물론 타이어·휠 세척과 광택·코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에 이용이 가능하다.

◇ 문 의 : 실버인력뱅크(031-482-4546)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사진_김진국 기자

안산시 시정정보 나눔공간 ‘우리마을지식창고’

안산시 행정자료와 와이파이, PC, 복사와 스캔, 팩스와 같은 편의 서비스 제공



옛날에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이 궁금할 때, 동네 ‘큰 어르신’을 찾아 여쭙곤 했다.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동네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았다.

‘큰 어르신’은 마을을 사랑하는 동네사람들의 구심점이자 지식창고였던 셈이다.

안산에는 ‘큰 어르신’과 같은 역할을 해내는 ‘우리마을지식창고’가 있다. 안산시의 옛이야기부터, 앞으로의 도시계획, 교통과 관광에 대한 이야기, 사회조사보고서, 시의회 회의록, 안산시에 찾아오는 철새와 야생화까지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가 모여 ‘마을의 나이트’를 그리는 곳이다.

단원구 고잔역(구 자전거 대여소)에 위치한 ‘우리마을지식창고’에는 시에서 발행한 3천

600여권의 행정자료가 준비돼 있다. 안산시와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재정 통계자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관리계획, 공공기관간행물, 세월호 관련 도서 등이 구비돼 있다. 시 관련 도서 외에도 일반도서, 문화와 예술, 잡지와 같은 간행물까지 다양한 도서가 비치돼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지식창고는 오가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와이파이, PC, 복사와 스캔, 팩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전철을 기다리며 잠시 앉아 휴대전화를 급속충전 할 수도 있다. 또 사전신청을 통해 15명 이하의 소규모 회의 또는 동아리 모임의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지식창고에 들린 박지현(고잔동)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바다였다는 걸 아이들이 궁금해 해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려고 들렀어요. 안산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온 권하윤·하도담(양지초 2)양은 “말랑말랑한 갯벌 위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생겼다는 걸 믿을 수 없었는데, 사진을 보고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전철역사 앞에 시정정보를 접할 수 있는 우리마을지식창고가 개소했다. 자녀들과 함께 들릴 수 있는 유익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

◇ 문 의 : 우리마을지식창고(031-482-1209) / 공간사용문의(031-481-2142)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사진_김진국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④

중앙동 내고향 광주식당

“참기름이나 청국장 같은 주재료는 산지에서 직접 조달한 국내산을 사용!”



‘오늘 점심 뭐 먹지?’ 밖에서 점심을 사먹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날마다 메뉴 고르는 것도 일이다. 담백하고 깔끔한 밑반찬에 따뜻한 집밥 한끼 먹고 나온 듯 든든하고 가격까지 부담없는 곳! 중앙동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 맛집으로 입소문난 안산시 착한가격업소 ‘내고향 광주식당’을 소개한다.

식당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장님의 고향이 음식 맛 좋기로 이름난 광주광역시이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남편

직장을 따라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중앙동에서 식당을 운영한지 어느덧 8년차다. 이 집의 대표메뉴는 갈칼한 제육볶음과 우렁쌈밥, 담백한 청국장이다.

전라도 특유의 맛깔난 음식과 사장의 친절함에 반해 직장회식 때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들이 많다. 조미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육수를 우려내 음식 맛을 낸다. 참기름이나 청국장 같은 주재료는 꼭 국내산으로 산지에서 직접 조달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인장은 한결 같이 지키는 기본운영철학을 한곳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나가는 비결로 꼽았다.

주인장은 “주말이면 서울에 사는 딸 부부와 손자, 손녀가 할머니 보러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손녀가 먹고 딸이 먹는 음식인데 당연히 좋은 재료를 써야 하지 않겠나? 가족들도 모두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파는 음식 먹는 음식 구분 없이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다. 손님들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 듯하다”며 활짝 웃었다. 전라도 식으로 직접 담근 김치도 인기가 많다. 김치만 먹어도 맛있다는 손님도 많다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하고 일요일은 쉰다.

지난해까지 5천원하던 청국장과 제육볶음이 올해부터 6천원으로 인상됐다.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27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사진_김진국 기자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전화 : 031) 403-8336

월드세탁

진짜 착한 세탁소!



세탁소 안에는 세탁물이 가득 찼다. 겨울에 입었던 옷을 정리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이 일 년 중 세탁소가 가장 바쁜 때이다. 주문이 많이 밀려 들어와도 절대 한 번에 많은 양을 세탁하지 않는다는 주인장. 소량씩만 세탁해야 오염이 잘 제거 돼서 더 깨끗해진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런 운영철학을 지키며 이곳에서 17년째 운영 중이다. 월드세탁은 착한가격업소이면서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진짜 착한 세탁소이다. 가격은 와이셔츠 2천원, 양복 5천이다.

주소 : 상록구 안산천남로 70, 104호
전화 : 031-502-6654 / 정기휴일 : 매주 일요일

고기마을 장터해장국

생삼겹살 위에 함초 가루가 듬뿍!



따스한 봄날. 사람이 많이 찾은 장날에 유독 북적이는 가게가 있다. 고기마을은 시민시장에서 10년이 넘게 운영하고 있고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된 지 6년 정도 됐다. 가격표는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생삼겹살 200g에 9천원, 선지해장국은 5천원이다. 잡내를 잡고 고기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생삼겹살 위에 듬뿍 뿌려진 함초 가루가 맛의 특별함을 더한다. 쌀, 고춧가루, 선지와 뼈까지 국내산을 사용한다는 주인장. 특히 김치는 매일 담그는데 직접 담근 매실액으로 깔끔한 단맛을 낸다고 한다.

주소 : 단원구 화랑로 149 초지시민시장 9동 34호
전화 : 031-401-7085 / 정기휴일 : 명절, 매월 첫째주 화요일

칠갑산

대부도 칼국수 부럽지 않은 맛!



직접 반죽한 면으로 만든 바지락 칼국수에 군침도는 비주얼의 메밀전병부터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 부럽지 않은 맛과 착한 가격까지! 여기에 시원하고 맛좋은 막걸리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초지 시민시장에 위치한 칠갑산이다. 칼국수 면은 사다 쓰지 않고 직접 반죽해 24시간동안 숙성시켜 만들어 더욱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은 바지락 칼국수 5천원, 냉면 5천원이다. 추운 겨울에는 칼국수, 더운 여름에는 냉면이 인기가 많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맛이 좋다!

주소 : 단원구 화랑로 149 초지시민시장 1동 18호
전화 : 031-402-6158 / 정기휴일 : 명절, 매월 첫째주 화요일



2018년 공원체험 '꾸러기 숲속 교실' 운영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6~7세 어린이 대상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봄을 머금은 숲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4월부터 시작된 공원체험 프로그램 <꾸러기 숲속교실>은 관내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 아이들이 공원의 다양한 식물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체험종류별로 전문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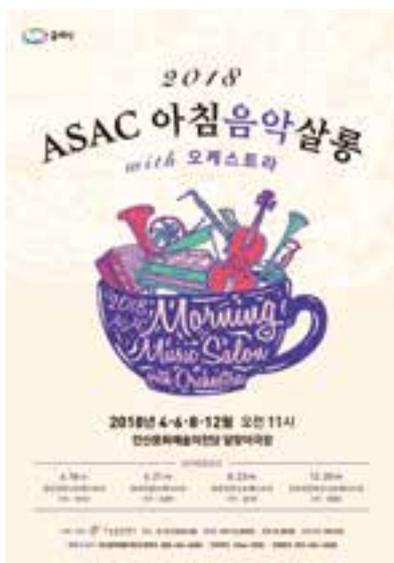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구룡공원, 본오공원, 신길공원 5곳에서 자연생태 체험, 공예체험, 부모와 함께~, 여름방학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자연생태체험, 공예체험, 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2차례 운영되며, 여름방학어린이 프로그램은 8월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함께~' 숲체험은 호수공원과 노적봉공원에서 토요일에 진행되니 신청하여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아이들은 계절의 꽃과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확대경으로 꽃과 풀잎을 관찰하고, 청진기를 이용한 땅속소리 듣기, 찰흙 등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구와 재료, 실험기구 등으로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다양한 공예작품을 만든다.

지난 4월 2일 노적봉공원에서는 안산유치원 어린이들의 첫 꾸러기 숲속교실이 진행되었다. 공원과 담당자는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아 다소 쌀쌀했지만 아이들이 참 즐겁게 참여했다. 숲에서 놀기도 하고 텐트 속에 들어가 숲에 굴러다니는 나뭇잎과 열매로 공예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연생태체험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공원과(031-481-2414)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브런치가 있는 아침음악살롱, 교향악으로 새롭게 단장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로 이끌어



간단한 브런치와 함께 차 한잔의 여유를 곁들이며 즐기는 클래식 공연 '아침음악살롱'은 클래식 음악과 함께 커피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산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올해 아침음악살롱은 지난 2년간 실내악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관현악 오케스트라로 공연형식을 대폭 변화시켰다.

지난 4월 18일, 안산문화재단의 브런치콘서트 '아침음악살롱'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교향악으로 2018년 첫 공연을 했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 최초 기초 자치단체 소속 교향악단으로 74회의 연주회를 비롯해 교향악축제,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통영국제음악제 등에서 뛰어난 연주력을 보여 왔다.

성기선 지휘자는 각 악장마다 해설을 곁들여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들이 들려준 대하드라마 같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전 악장은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라흐마니노프의 제2번 교향곡은 라흐마니노프의 예술성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무렵의 작

품으로, 관현악의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색채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일품인 스케르초 악장은 그의 뜨거운 열정과 진취성을 표상한다. 또 슬프도록 아름다운 서정성이 흘러넘치는 완서악장(느릿한 박자를 가진 악장)은 그 특유의 애잔하고 감미로운 선율미의 극치를 보여주며, 힘찬 행진곡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악장은 절묘한 구성미와 눈부신 클라이맥스를 아우른다. 그의 멘토였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만큼이나 유려하고 애절하며 강렬하지만 그보다 한결 강인하고 의연하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곡은 진정한 '거인의 교향곡'이라 할 수 있다.

이날 공연에는 안산시 청소년 10인 이상에게 50% 할인되는 문화패스인 '키움티켓'으로 참여한 능길초 학생들이 자리했다. 성기선 지휘자는 학생들이 앉은 객석을 바라보며 "오케스트라가 빛어내는 순수한 여쿠스틱 선율을 감상하는 경험은 청소년의 미래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아이들과 자주 시선을 맞추며 열정적인 몸짓으로 연주를 이끌었다. 학교에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왔다는 서성호 학생(시곡중 1)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피아노를 배우다 지금은 클라리넷을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클라리넷 독주 부분을 눈여겨 보았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4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교향악을 시작으로 6월 21일은 코리아콥오케스트라, 8월 23일은 다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12월 20일에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한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 (031-481-402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⑩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사)웹툰협회 안산지부 - 웹툰으로 안산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린다



웹툰(webtoon)은 단순한 인터넷 만화를 뛰어 넘어 이제는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고 해외로 수출되며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연재일마다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는 인기 웹툰을 보며 웹툰 작가를 꿈꾸는 이들도 많아졌다.

(사)웹툰협회 안산지부 김재성 지부장은 "웹툰의 종주국은 한국이다. 책으로 보는 만화를 PC와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환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창작환경과 소비 형태는 실로 혁명적인 시도였다. 웹툰 시장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부상할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며 웹툰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국내 웹툰 플랫폼은 40여 개를 넘어섰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8천 명이 넘는다. 웹툰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과 높은 모바일 보급률에 힘입어 '스낵컬처(snack culture)*'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웹툰 작가들이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7월, (사)웹툰협회가 출범했으며 웹툰협회 안산지부가 청년큐브 초지캠프에 둥지를 틀었다.

웹툰협회 안산지부는 지난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크로싱툰(Crossing toon)展'을 개최해 1909년에 등장한 1컷 만화에서부터 검열과 탄압의 세월을 거쳐 '코믹(comic)'이

라는 문화컨텐츠 원천소스로 자리매김한 웹툰을 소개했다. 크로싱툰 전시는 안산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10대~30대 웹툰 지망생들을 발굴해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됐다.

웹툰협회 안산지부는 안산지역 지망생들을 육성하며 진로코칭 역할을 하기 위해 웹툰스쿨을 운영한다. 청소년에게는 방과 후 학교 강사로 꿈나무들을 양성하고, 지난 4월 5일부터 여성비전센터에서 우리 지역 웹툰 활동가 양성과정 '웹툰니아'를 운영하고 있다. 웹툰니아는 웹툰에 관심은 있으나 어렵다고 느꼈던 시민에게 제작 노하우와 우리 지역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재성 지부장은 "기초반 수료 후 하반기에는 심화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동아리로 이끌어가면서 공모전 출품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며 "한때 만화가의 꿈을 꾸던 이들이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와 지역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활동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 문의 : (사)웹툰협회 안산지부(010-3308-0813)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스낵 컬처(Snack Culture) :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동안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말함.

미래를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교육협동조합 '두고래진로센터'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우리의 풍습, 소중한 우리의 것이 지켜지길...



두고래진로센터(DOGO來)는 2013년 '여성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로코치, 직업상담사, 학습코치,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 진로동아리로 출발한 진로·직업전문교육센터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라 불리며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주부들의 열정이 모여 일자리를 해결하고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현실에 맞는 진로교육을 위해 2015년 12월 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두고래는 '미래를 향해 가자'는 의미로 '미래를 현실로'라는 미래지향적 진로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두고래는 청소년의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과 활동중심의 직업체험, 인성과 리더십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개발된 50여 가지의 직업레이팅으로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안산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 러브 안산'과 지역의 사회적기업 진로체험 멘토링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 기업을 탐색·연구하고 방문해 직업 체험 후 제안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인 '청소년 사회적기업 진로체험 멘토링', 다문화·해양산업·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특성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8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안산YMCA, (사)가치있는누림, 다문화학교, 커리어디스커버리 등과 협약해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산본, 파주 등 경기도 내 초·중고 외에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원곡동 다문화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장되어 진로교육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정월 대표는 "두고래의 교육활동은 '청소년의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공교육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 열정과 협력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여성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 두고래진로센터(010-9720-8266)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미술의 도시 안산 ②

안산은 조선후기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미술의 도시이다. 안산은 예로부터 물 좋고, 산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예술가들이 많은 예향의 도시였다. 단원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을 비롯해 다양한 미술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는 미술의 도시 안산을 소개한다.



순수한 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는 그린다

안산을 대표하는 미술가 '장미화가 성백주'

밖에서 바라본 안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도시일 뿐이지만 안산에 살아 본 사람들은 안다. 안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예로부터 물 좋고, 산 좋아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안산은 예술가들이 많은 예향의 도시였다. 근대 산업화로 급성장한 회색도시 안산에 예술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고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면서 안산에 정착한 예술가들도 적지 않다. 안산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예술인들은 안산을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귀중한 자원이다.

안산을 대표하는 현대화가 성백주 화백을 만나 살아온 이야기와 작품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본오동 한양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창작활동 중인 성 화백은 '장미화가'로 잘 알려진 화가다. 192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해방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성 화백은 "당시에는 음악이나 미술을 잘하는 교사를 보물로 생각했다. 나는 미술을 잘 해서 다른 교사와 서로 시간을 바꿔가며 수업을 하곤 했다"며 교사 시절을 떠올렸다.

그림 좋아하던 교사였던 그는 1959년 국립도서관 화랑에서 열린 '제작동인전'에 참가하면서 화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백발의 화백은 반 백년이 지난 그 때의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듯이 술술 풀어낸다.

"정문규, 나, 이철이, 김영덕이가 함께 비구상계열 작품을 모아 전시를 했다. 그때 반응이 참 좋았어. 꼭 (선을)뚝바로 그어야 하는 건 아니잖어. 좀 삐뚤게 그어도 튀어나와도 자유롭잖아" 당시 제작동인전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전시로 평가받았다. 그 후 매년 열린 조선일보 현대작가 초대전에 참가하며 현대화가로 자리를 다졌고 각종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초대될 정도로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성 화백의 상징인 장미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장미를 잘 그리던 황영수 화백과 친했어. 서울에 가끔 올라오면 그 분 댁에 머물기도 했는데 어느 날 그분 작업하는 걸

보다가 '선생님 나도 장미 한번 그려볼까요?' 하고 물었지. 그 분 말씀이 '장미는 장미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당신이 보는 장미와 내가 보는 장미가 다르니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나도 장미를 그려 봤는데, 그려놓고 보니 잘 팔려. 그래서 계속 그리고 있지"

한 화가가 60년 가까이 한 주제 잡고 끊임없이 그린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 그가 장미를 오늘도 그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

창작 작업은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행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새 물을 채우면 된다. 잠시 더러워졌던 마음도 새 물을 계속 분는다면 깨끗해질 수 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직접 그리는 행위도 우리 마음에 새물을 분는 것과 같다. 좋고 옳은 것으로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

"그림이라는 것은 화가의 생각과 자연이 마주쳐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잡아 둔 것이야. 그 사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그림 속에는 조형성도 있고 그 사물이 주는 서정성도 담기지. 그림을 그리는 것 뿐 아니라 그림을 감상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만의 개성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장미는 나를 끊임 없이 성찰하도록 만들어 내가 순수한 인간으로 완성되게 만든다."

취재를 위해 찾아가던 성 화백의 집안 곳곳에는 직접 그린 장미 그림이 벽면 가득 걸려 있다. 하지만 그가 그린 장미는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 송이 한 송이 예

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림 속 색채와 리드미컬한 배치로 인해 장미의 생동감과 아름다움이 살아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자신의 순수성을 갈고 닦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화백은 오늘도 캔버스 앞에서 수행하듯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성백주 화백이 안산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90년대 후반. 작가도 정확한 연도가 기억나지 않는다. "안산에 오고 몇 년 지나서 제3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2000년)을 수상했으니 한 20년 즈음 되어간다"고 짐작한다.

평소 친했던 정문규 화백의 권유로 안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는 안산 첫 인상을 한마디로 '수목공기가 좋은 도시'라고 평가했다. "수목만 너무 많아도 안 좋아. 나무도 적당하고 공간 환해서 마치 외국 도시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안산에 정착한 후 좋은 일도 많았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도 받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두 자녀를 키워 모두 출가시키고 지금은 부인과 단 둘이 살고 있다.

화백의 집, 별이 잘 드는 방은 작업실로 사용 중이다. 화가의 작업실을 볼 수 없느냐 청하자 성 화백은 "우리집에서는 여기를 '도살장'이라 부른다"며 작업실로 안내한다. 완성한 작품과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작품, 이제 막 시작한 그림이 어지러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 화백의 의자가 자리잡고 있다. 모름지기 창작자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성 화백. 혹시 '도살장'이란 의미는 어제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공간이라는 뜻이 아닐까? 노 화백의 한마디가 마음을 울린다.

"창작 작업은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행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새 물을 채우면 된다. 잠시 더러워졌던 마음도 새물을 계속 분는다면 깨끗해질 수 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직접 그리는 행위도 우리 마음에 새물을 분는 것과 같다. 좋고 옳은 것으로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하혜경 편집위원



폐막작, 공식참가작 비롯 축제에서 볼 수 있는 신작 다수 시민, 예술가가 함께 사전 워크숍 진행하며 완성하는 작품 다수 5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리프로그램 열려

2018안산국제거리극축제(ASAF · Ansan Street Arts Festival)가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개국 108개 공연팀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폐막 프로그램을 비롯, 안산리서치 3편, 공식참가작 19편, 거리예술플랫폼 8편, 광대의 도시 16편, 청자유구역#유스컬처 21편, 시민버전3.0 35편, 팝업아지트#도시놀이터 5편, 자매교류 공연 1편 등 총 10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에서 최초로 만나보는 신작들과 확대된 시민참여형 공연으로 한층 차별화된 무대를 예고한다.

축제는 2005년 시작해 벌써 열네 번째다. 안산문화재단 강창일 대표이사는 “올해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로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시민이 주축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서 돋보이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최초로 만나보는 신작과 차별화된 거리예술 작품 구성

특히 올해 축제는 거리예술의 본질에 집중해 대한민국 대표 거리예술축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올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나 볼 수 있는 신작들이 다수 배치되었다. 국내 대표 거리예술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제시하는 근거이다.

폐막작인 프랑스 ‘룩아모로스’의 <고갱의 거북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으로 라이브 음악과 텍스트, 영상, 미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다.

국내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극공작소 마방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리예술작품인 관객과 함께하는 이동형 거리극 <로드씨어터 돈키호테>를 이번 축제에서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다.

2 참여형 공연으로 만나는 거리예술

축제의 핵심은 역시 시민이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일상적인 관계를 갖는 그 무엇이어서 한다는 과제에서 출발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관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프로그램 기획에는 다양한 관객층을 우선 고려했다.

이번 ‘팝업아지트#놀이하는도시’는 어린이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막대와 종이상자를 이용해 건축물을 만드는 프로그램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공연에 배우로 직접 참여하는 작품까지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참여가 가능한 공연들을 구성했다. 또한 직접 체험해보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거리예술을 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시민버전3.0’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와는 달리 최초로 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로서 축제와 거리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워크숍을 진행했다.



폐막작, 룩아모로스-고갱의거북이

안산국제거리극축제(ASAF · Ansan Street Arts Festival)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 시작해 안산에서 매년 5월 개최하는 공연예술축제다. 안산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도시민의 일상과 삶터 이야기를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의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내는 우리나라 대표 거리예술축제다.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시 곳곳에서 열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한 사전워크숍 기간에는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퍼포먼스(커뮤니티 댄스)를 준비해 5월 6일 축제에서 선보인다. 35개 시민예술단체가 참여한 이 퍼포먼스는 약 250여명이 광장 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선보이게 된다. 워크숍을 통해 안산 시민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추후 작품창작에 대한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3 안산문화광장을 넘어 안산 전역을 무대로

올해는 축제의 중심무대인 광장이 다양한 형태로 확장된다. 안산문화광장은 길이 1.16km, 면적은 서울 광화문 광장의 2.6배에 달하는 거대한 무대다. 지난 몇 년간 축제는 안산문화광장을 벗어나 시민 삶터 깊숙이 들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올해는 과감한 변화가 시도된다. 본 축제 전에 미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프리프로그램은 원곡동, 상록수역, 반월역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안산의 풍경과 일상이 작품에 담기고 장소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시간과 공간적인 면을 배려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합동 분향소가 있었던 화랑유원지에서 특설무대를 만들어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오호 쉬호파스’의 ‘보트_랭보의 취한 배’, ‘카를라 클라트&안드레스 벨라디에즈’의 ‘익숙한 변화’,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의 ‘안산순례길2018’, ‘프로젝트 외’의 ‘빨리빨리’를 공연하며 장소성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시도를 한다.

4 알찬구성으로 만나보는 프로그램

안산만의 이야기를 담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유일무이한 제작지원프로그램인 ‘안산리서치’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대의 도시’도 눈 여겨 볼만 하다. 다문화, 안산 일상의 소리, 세월호의 이야기를 담은 각 3가지의 작품이 안산리서치에서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광대의 도시’는 왜 웃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지며 유쾌한 공연위로 가족단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광대극들은 전통에서 현대를 넘나든다. 신진 예술가의 작품으로 채워진 ‘거리예술플랫폼’은 관객에게 신선하고 도전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 ‘홍자유구역#유스컬처’는 도심 속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생겨난 서브컬처와 놀이 문화들을 거리예술과 접목시킨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서브컬처와 거리예술을 접목한 시도들을 통해 도시문화 및 청년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구현방식의 변화를 도모한다.

지나온 10년 앞으로의 10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매년 수 많은 축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년 묵묵히 발전하는 축제는 그리 많지 않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지나온 10여년의 시간동안 축적되어온 거리예술의 노하우를 단 3일간 관객들에게 쏟아낼 예정이며, 향후 국내를 넘어 세계 거리예술의 중심이 되어가는 에너지를 축적할 것이다. 이번 축제를 총괄하는 윤종연 예술감독은 “도심 한 복판에서 펼쳐지는 예술축제는



매년 새로운 모습들로 우리를 설레게 하며, 큰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2018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거리예술축제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말했다.

일 시 | 2018. 5. 5.(토) - 5. 7.(월), 3일간
 ※ 프리프로그램 : 5. 1.(화) - 5. 3.(목)
장 소 | 안산문화광장, 안산 일대
주최 · 주관 | 안산시, (재)안산문화재단
문의 |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 031-481-0533
티저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Zhw9DVgJVRk>



공식참가작, 갈매 -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



안산리서치, 꼬끼리들이 웃는다 - 물질2 물질하다가



폐막작, 드림엔진 - 환상비행

독자코너 참여자 모집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아기사진(또는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이름 · 생년월일 · 성별, 부모이름, 주소, 연락처, 태명, 태몽, 사연(탄생이야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5만원)를 드립니다.
(대상 :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 24개월즈음 아이를 둔 출산 가정)
※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 아이

아기이름: 추정훈

출생년월: 2016. 3. 태명: 기쁨이

태몽: 붉은 복숭이를 따는 꿈



정훈이는 저에게 5년만에 찾아온 둘째랍니다. 첫 아이는 결혼 하고 금방 생겼는데, 어찌된 일인지 둘째는 쉽게 안 생기더라고요.

둘째 임신이 자꾸 늦어지니, 주변에서는 둘째는 있어야 한단느니, 왜 둘째는 안 갖느냐느니 하는 속 모르는 잔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둘째를 포기하려던 그 때, 저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에 저만큼이나 우리 가족들 모두 좋아했지요. 하지만,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저를 찾아온 것은, 바로 무시무시한 입덧이었어요.

첫 아이 임신했을 때도 입덧 때문에 고생했는데, 둘째 임신 때는 더 고생했지요. 임신하고 두 달 만에 9kg이나 빠졌다면 말 다했지요. 게다가 워킹맘이라 직장에 다니느라 제대로 된 태교도 못했어요.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다보니 어느새 안정기에 들었고 다행이 열 달을 순조롭게 채우고 정훈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런데요... “둘째는 사랑이다.”라는 말들 엄마들이 간혹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둘째를 낳으니 알겠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고서는 모든 것이 처음이니 아이가 예쁜

지도 모르고 매사에 안절부절 못하며 아이를 키웠다면, 둘째 아이는 심지어 우는 것도 귀엽더라고요. 더군다나 둘째가 첫째랑 너무 닮아 첫째를 다시 키우는 기분이랄까? 아무튼 묘하더라고요~ 큰 아이 뻘 느끼지 못했지만 둘째가 크는 모습 하나하나가 새롭고 신기하고... 모든 게 여유 있게 받아들여졌답니다.

게다가 둘째가 큰 애를 따라하다 보니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혀서 엄마 입장에서는 더 수월했어요. 심지어 어린이집 적응도 일주일일 채 안 걸렸대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둘째 낳기를 강추하고 다닌답니다. ^^

사랑하는 정훈아~

엄마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기뻐!

앞으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렴!

엄마가 너의 앞길을 늘 응원할게~ 사랑해.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상록수 · 단원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가 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지원 대상자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및 화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 쌍둥이 등)과 출산순위(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문 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단원보건소 (031-481-2573)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첫 투자

안산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주민이 대상이며(부부 중 한사람만 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민이어도 가능) 결혼예정 및 신혼부부면 누구나 가능하다.

검사항목은 혈액검사(B형간염항원항체, 혈액형, 풍진 항원항체, 빈혈, 매독, AIDS 등), 요당, 요단백, 흉부 x-ray 촬영이며, 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준비서류는 예비부부인 경우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이며 신혼부부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 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단원보건소 (031-481-2573)

안산시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지원 확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도 신청을 통해 소급적용...

'힘찬 울음소리'를 선물하는 아기시민들을 환영하기 위해 안산시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둘째아(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지원했던 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 적용하는 관련 조례를 지난 20일 공포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의 경우 50만원, 둘째아의 경우 100만원, 셋째아의 경우 300만원이 지원된다. 넷째아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되는 방식이다. 장려금을 신청한 첫 해 20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신청한 다음 해부터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때에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이다. 출산지원금은 조례공포일 이전인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소급적용 되지만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1월부터 3월에 출생한 소급대상자에게 18일 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안산시는 올 6월부터 모든 출



산가정에 축하카드가 포함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또 시 관계자는 “셋째아부터 지급하는 양육비의 거주 요건도 없어지고, 행복플러스카드 혜택도 임신부까지 확대시행 하는 등 앞으로 선제적인 출산정책을 펼쳐 저출산을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604)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안산시 자매결연 도시를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부안

○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먹거리, 부안만의 색깔이 있는 특산물을 바탕으로 정과 인심,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누는 축제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에 선정되면서 그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제6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거리(路)에서 찾은 여유'를 슬로건으로 여는마당과 닫는마당 등 총 4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 축제는 신규 프로그램과 보완 프로그램, 계승 프로그램, 폐지 프로그램 등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과감히 빼 더욱 담백한 부안오복마실축제로의 완성도를 높였다.

올해는 오복구슬을 찾는 원정대와 주렁주렁 오복을 잡아라, 마실댄스 라이트 클럽, 오복 워터컬러 난장, 개양할미 서해바다 활어 썰기 대회 등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부안오복마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매년 많은 관심과 함께 큰 인기를 얻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적극 참여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올해는 '복 받는 날 퍼레이드'와 '위도 띠벳놀이 재현', '옛대! 오복 받아라' 등이 축제의 흥행을 이끌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S 인기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과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축하에어쇼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우포리 일원의 침수방지를 위해 줄포만 67만 7662㎡의 갯벌을 막아 만든 공원으로 2007년 줄포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야생화단지, 바둑소공원 등이 조성돼 있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천연공간으로 유명하다.

줄포갯벌 습지는 2010년 1월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재됐으며 생태교육 체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내소사

내소사는 633년(백제 무왕 34)에 해구두타가 창건했고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이어지는 600m 전나무숲길은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길이다.

숲길은 삼림욕의 상쾌함을 주는 내소사 관광의 첫 번째 코스다.

대웅보전은 보물 제291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천년고찰의 기품과 고즈넉함을 간직하고 있다.

봄에는 화려한 벚꽃, 여름에는 싱그러움 전나무숲길, 가을 단풍, 겨울 설경의 아름다움과 함께 구구절절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유명 사찰이다.



○ 부안 마실길

부안은 맛과 풍경, 그리고 이야기 등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 '변산삼락(邊山三樂)'이라 불리었다. 이는 자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부안의 명품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부안의 산과 들,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부안 마실길로 탐방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부안 마실길은 부안의 모든 볼거리를 담아 놓았다. 길을 걸으며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문학여행, 역사공부, 생태탐방이 가능하다. 또한 바지락죽을 비롯한 풍부한 먹거리도 접할 수 있다.

세계 최장길 새만금 방조제와 대항리 패총, 곤충체험, 여해신 개양할미를 모시고 있는 수성당, 변산·고사포·모항·상록해수욕장, 사극촬영 명소인 부안영상테마파크, 조각전시관,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곰소염전, 곰소소금을 이용해 만든 젓갈, 줄포자연생태공원 등 발 딛는 곳곳이 볼거리, 즐길거리, 이야기거리로 가득하다.

◇ 문의 : 부안군청 기획감사실(063-580-4240)



복받으러 부안 오복
마실축제에 오세요!

5월 5일(토)~5월 7일(일)



아기에게 책을 선물합니다

중앙 · 단원어린이 · 상록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중앙도서관과 단원 ·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제9기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열어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했다.

북스타트는 영국의 신생아들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면서 시작된 영유아 독서운동으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지원 사업이다. 안산시는 2010년 북스타트 선포식을 시작으로 매년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상호 교감하는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도서관을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후속프로그램을 연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면 북스타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록어린이도서관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안산시민 50명을 지난 4월 1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5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북스타트(플러스)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을 열고 ▲북스타트란 무엇인가 ▲아기 발달과정에 맞춘 책읽기와 책놀이 ▲그림책 바로알기 ▲그림책 깊이 알기 ▲책놀이 실제:동화구연과 손유희 ▲책놀이 실제:그림책과 놀이 ▲북스타트 현장목소리를 주제로 전문가의 강의 후 위촉식을 갖는다.

교육 수료자는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로 위촉돼 각 도서관에서 북스타트(플러스) 책꾸러미 배부, 아기와 부모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스타트(플러스) 사업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5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으로 뮤직팡팡 음악놀이, 오감발달 통합놀이, 엄마랑 아기랑 책놀이를 연다.

중앙도서관에서는 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북스타트(3~24개월)와 북스타트 플러스(25~36개월)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원어린이도서관은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8지능 놀이를 통한 아기와 양육자간 상호소통교육인 '아이재미 오감놀이', 음악적 두뇌를 발달시키며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유리드믹스 음악놀이', 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희활동 '꿀꿀꿀 책놀이'를 운영한다.

더불어 단원어린이도서관은 'Pre-북스타트 '독서태교교실'도 운영한다. 5월 1일부터 29일까지 독서태교의 중요성, 태몽꾸미기, 손유희, 턱받이 만들기 등 책마중으로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한다.

◇ 문의 : 안산시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iansan.net>)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감골도서관 퇴근길 인문학

미니멀 라이프 실천방법 강연



4월 12일 오후 7시, 미니멀 라이프 실천방법을 전한 감골도서관 퇴근길 인문학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가장 단순한 것의 힘' 저자 탁진현 씨는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라고 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옷장, 집안정리 등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해당된다.

탁진현 강사는 물건 비우기부터 마음 비우기까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비취 강의를 풀어나갔다. 20대 한 여성은 "트렌드가 반영된 강의를 저녁 시간대에 들을 수 있어서 좋다."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실용적인 강좌들이 앞으로도 종종 열릴길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여성 참가자는 "강연을 듣고 방청소를 해야겠다고 느꼈고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일부 배웠을 뿐인데 행복한 마음이 생겼다"며 "비움으로써 행복해지고 자연환경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음을 새롭게 깨달았다. 기대이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9일 오후 2시에는 아나운서 한석준이 전하는 특강 '디지털영상의 시대, 그래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마련됐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 문의 : 감골도서관(031-481-370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운다

복기기에 달겨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세요.

헹군다

이물질이나 음식물은 닦거나 헹궈주세요.

섞지 않는다

재활용종류는 종류별로 구분에 맞추어 섞지않고 분리해주세요.

분리한다

라벨 등이 다른 재질일 경우 제거해주세요.

BRAVO ANSAN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은 무료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메일 bravo@iansan.net • 전화 031-481-2042

단원미술관 상상미술공장, 어린이 체험놀이터 운영

시각 · 촉각 기반한 체험... 어린이들의 상상력 · 사고력 신장



단원미술관 상상미술공장에서는 시각과 촉각에 기반한 체험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감각놀이 공간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오피아트를 활용한 시각 착시 놀이, 만져보고 그리는 촉각놀이, 추억이 들어간 CD모빌 만들기 기로 구성된 체험놀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요일 휴무) 운영된다. 한 회당 20명이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시각 착시 놀이는 관람객들이 오피아트의 회전판을 돌려 시각적 착시를 느낄 수 있는 체험으

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움직이면서 시각에 대한 불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다. 물체를 만지고 이를 시각화하여 그려내는 촉각놀이 체험활동은 감각을 통하여 사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체험이다. 또한 추억이 담긴 CD모빌 만들기는 주위의 재료들이 미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직접 장식한 CD가 작품이 되어 주위 환경에 의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모빌 작품이 된다.

어린이체험놀이터에 참여한 단원구청직장어린이집 5~6세 어린이들은 오피아트를 돌려보며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몸을 비틀어보기도 하며 빙 도는 흉내를 내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상자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만져지는 느낌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예쁜 친구를 그리거나 동물, 빨간 해 등 CD에 붙일 그림을 열심히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원구청직장어린이집 한지은 교사는 “3월 체험을 단원미술관으로 정하고 오게 됐는데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오는 길에 개나리꽃도 보고 아이들이 참 좋아했어요.” 라고 말했다.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는 상상미술공장 감각놀이 체험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문 의 : 단원미술관(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행복예절관, 기본예절과정 운영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예절 과정이 오는 5월 10일까지 10주 과정으로 문을 열었다. 행복예절관 행복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통예절, 복식, 구사구용(九思九容), 가정의례, 현대매너 등 다양한 예절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복예절관은 이번 시민예절 프로그램을 통해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와 효 정신을 돌아보며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양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초지동에서 온 권경순(49세) 씨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는데 거기서 정보를 얻고 예절교육을 신청하게 됐어요. 작년에는 다도를 배웠는데 올해는 행복예절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을 예정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서 너무 좋습니다. 딸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딸이 더 좋아하네요.”라며 배울 게 많다고 반긴다.

함께 온 딸 박보미(23세) 씨는 “잘 모르고 있던 예절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어른들을 대할 때 좀 더 예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좋습니다.”며 “평소 잘 입어보지 못한 한복 입기나 현대 매너 등 교육 받은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할 날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했다. 행복예절관은 시민예절 프로그램 외 전통성년례, 어린이 예절, 찾아가는 예절학교, 여름·겨울 예절학당 등 아동·청소년 프로그램과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설명절체험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문 의 : 안산시행복예절관(031-475-0323)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전통 발효음식 장류 체험 프로그램 진행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장수하는 지역의 음식문화에는 발효음식이 빠지지 않는다. 안산시는 전통 발효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 평생교육기관인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된장, 고추장, 식혜, 조청, 장아찌 등 전통 발효음식에 관심

있는 시민 20명을 모집, 지난 3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이론 수업과 실습을 병행한다.

첫날 수강생들은 프로그램 안내와 이론 수업 후, 엿기름으로 식혜를 만들었다. 식혜는 싹 틔운 보리를 갈아 만든 엿기름의 효소를 이용해 곡류의 당분을 얻는다. 우리 선조들은 설탕 대신 식혜 물을 고아 조청과 엿을 만들어 음식의 단맛을 냈다. 수강생 변기연 씨는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수업”이라며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로 고두밥을 삭혀 식혜를 만드는 제조법은 조상들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려준다.”고 했다.

수업은 전통 발효음식 연구가 박상현(58세) 강사가 진행한다. 발효의 이해와 콩의 효능을 배우고 나서 메주 만들기 체험을 한다. 속성으로 만드는 담뱃장과 고추장 담기, 된장, 고추장을 소스로 활용한 파스타 만들기, 누룩으로 빛는 전통주 등 발효음식을 배운다.

박상현 강사는 서양화를 전공한 화가 출신으로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다 토종 콩과 좋은 물로 장을 담그려고 청양으로 귀농했다. 그는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농사법으로 토종 콩을 길러 전통장을 담는다. 토종 콩은 단단하고 단맛이 강해 메주를 빚어 장을 담그면 달고 온화하며 풍부한 장맛이 난다. 박상현 강사는 “이름 있는 포도주가 그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하듯이 토종 콩으로 전통방식 그대로 담근 장은 세계인이 즐기는 웰빙 음식이 될 수 있다. 특히 냄새 장벽 없는 고추장은 다양한 소스로 응용할 수 있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박상주 평생교육원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장을 체험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통을 이어 가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수강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가족·이웃·친구들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031-400-7095~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제2기 안산시 청소년의회 위촉식 개최

지역 중학생 22명 선발... 민주시민 소양 함양 기회



청소년 의원들, 오는 8월까지 입법활동으로 지역발전 정책 마련 나서

안산시의회가 운영 중인 '안산시 청소년 의회'가 지난 6일 의원 위촉식을 갖고 2018년도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 관

계자들과 안산의 각 중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었다.

올해로 2기를 맞는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교실 밖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입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 제

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각 학교별로 학교장의 추천과 서류 전형 등의 과정을 거쳐 22명의 청소년 의원들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매달 한두 차례씩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담은 정책 수립의 기회를 갖는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이 안산 스마트허브와 사회조력발전소 등을 직접 방문해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정도 운영 계획에 포함돼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정책들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우수 안건은 시상뿐만 아니라 시의원에게 자료집으로 전달돼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안산시 청소년 의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다"면서 "올해도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완성도 있는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대책 특위, 18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8일 의회 제 3상임위실에서 결과보고회를 갖고 지난 4년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014년 7월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그 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 기여와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세월호 피해 가족의 위안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특위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 노력 등을 기울여 왔으며,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 뒤, 특위가 유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현장찰

동을 활발히 벌였던 것과 위원들의 개별 활동 내용을 보고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특위의 활동 기간이 아직 남은만큼 활동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날 논의된 사항들은 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박은경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안산시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과 안전한 안산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 해준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특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사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7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24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확정



안산시의회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심의한다.

의회는 18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7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48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각각 2차례씩 열어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한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성철, 성준모 의원을 선임했으며, 지난 회기 계류 안건 2건은 이번 회기에서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이고 회기도 짧은 만큼 더욱 밀도 있게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시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만화를 사랑하는 성안중 학생들의 모임, '더스티니(DUSTINY)'



장아영
(성안중학교)

얼마 전 성안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던 동아리가 있었다. 이 유는 특이한 홍보지였는데, 알록달록한 배경에 직접 그린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넣어, 다른 홍보지들과는 색다른 느낌을 줬다. 그 동아리가 바로 만화부 'Dustiny'이다.

만화부 'Dustiny'의 이름은 'dust(먼지)'와 'destiny(운명)'의 합성어이며 총 15명의 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월요일에 자유 그림 그리기, 금요일에 크로키를 하고 시간은 4시부터 4시 30분까지다. 또한 2~3달마다 액자 그리기를 하며, 매년 하고 있는 벽화그리기는 1학기 내로 진행된다고 한다.

Q.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A. 평소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주변에 이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어 들어오게 됐다.(안정원)

Q.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와 즐겨보는 만화는?

A.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어서 좋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재미다.(배승연)

A. 너무 많아서 전부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지금 가

장 먼저 떠오른 건 '제로게임', '갓 오브 하이스쿨', '구구 까까'이다(안정원)

Q. 만화부의 장점은?

A.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며,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만화를 그릴 수 있어 좋다.(이윤정/이채원)

Q. 만화부만의 목표가 있다면?

A. 성안중학교 내에 더 많이 알려져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는 것이다.(김민정)

Q. 만화부장의 한마디

1학년 때 부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어느덧 3학년 부장을 맡게 됐다. 만화부에는 개성있는 친구들이 많아 들어오면 더 없이 재밌게 활동할 수 있다. 굳이 안 잡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와주길 바란다.

한승호
(원일중학교)

난 놀러간다... 뭘로? 페달로!

따뜻한 봄날이 이어진다. 이럴 때 자전거를 타러 밖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하지만 갑자기 자전거가 없다면? 혹은 겨우내 방치했던 자전거 바람이 없다면 어떨까? 걱정하지 말라. 안산에는 페달로 자전거가 있기 때문이다.

페달로는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누구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는데 30일에 5천원, 6개월에 2만원, 1년에 3만원이다.

페달로 이용방법은 먼저 홈페이지(<http://www.pedalr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자전거 대여소에 간다. 그곳에는 대여를 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있다. 자전거 대여

를 선택 후 회원 칸에 들어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다. 그럼 사전에 회원가입을 할 때 적었던 핸드폰 번호로 인증 문자가 온다. 인증번호를 입력 후 정거장에 남아있는 자전거를 선택해 빌릴 수 있다. 자전거는 한번 빌릴 때마다 2시간씩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을 초과할 시 30분당 500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정거장으로는 안산시청, 문화광장, 중앙역, 단원도서관, 선부동 롯데마트 등등 안산시의 단원구와 상록구 모두 합쳐서 106곳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페달로를 이용하는 22살 김한석 씨는 "자전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화정천 같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아 매우 좋다."고 전했다.

활동이 많아지는 5월, 페달로를 이용해 봄바람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이예나
(석수중학교)

석수중학교 친구 사랑 주간 행사, 얼굴도 활짝 마음도 활짝

벚꽃이 활짝 핀 4월 친구사랑주간을 맞이하여 석수중학교는 친구사랑행사를 개최하였다. 친구사랑주간은 말 그대로 친구와 더 친해지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간이다.

친구사랑행사는 4월 2일~4월 5일 총 4일간 매 점심시간마다 3층 구름다리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4월 2일은 전교생 모두 참여가 가능했고, 3일은 1학년, 4일은 2학년, 5일은 3학년이 참여했다.

행사는 2인 1조로 미션을 뽑은 후 수행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방식이다. 행사는 친구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미션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친구칭찬 5가지

써오기, 친구랑 사진 찍기, 친구 업고 20m가기, 친구 이름으로 3행시 지어오기, 친구 얼굴 그려오기 등 다양한 미션이 있었다.

행사를 참여한 김종권 학생은 "친구주간행사 덕분에 친구랑 더 친해졌고, 미션을 성공하면 먹을 것을 줘서 좋았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쉬웠다."고 말했고, 이유리 학생은 "과자를 통해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짝 피게 돼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운영한 김지영 학생은 "어울림 연구 학교로 지정



돼서 행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 행사를 운영하면서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채원 학생은 "친구사랑주간 행사를 운영 하면서 아이들이 상품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신입생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북 두들기며 스트레스 풀어요”

취미로 시작해 큰 무대에 서기도 하는 난타 동아리 ‘옹골찬’



직장을 다니며 취미로 활동하는 난타 동아리 ‘옹골찬’을 찾았다. 커다란 북을 힘차게 두들기며 연주하는 동아리 공간이 사뭇 후끈하다. 직장인 동호회 ‘옹골찬’ 난타 동아리는 매주 수요일 7시 30분 모임을 갖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10여 년 전 ‘난타’는 생소했을 뿐 아니라 난타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난타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안산에 난타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됐다. 난타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옛날부터 있던 것과 새롭게 사용되는 것들을 이용해 연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난타 동아리를 처음 만든 김대권 씨는 주부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로 난타를 추천한다. 두들기며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난타는 전체적으로 사물놀이의 리듬이 갖고 있는 원시적 폭발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힘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리듬과 비트로 구성된 작품이면서도 뚜렷한 줄거리와 드라마가 있어서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옹골찬 회원들은 ‘직장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북을 치면 풀리는 거 같아요. 주부들이라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난타는 운동도 돼서 좋아요.’ ‘5~6년 전에 호수공원에서 난타공연을 보고 매료 돼서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 성격도 밝아지고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직장인 동료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엄마 공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 제 만족감도 더 높아지는 거 같아요.’ ‘직장인 동호회라서 색다른 직업인들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좋아요’ 등 난타 자랑에 끝이 없다.

난타 동아리는 ‘옹골찬’ 팀을 포함해 몇 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정기공연을 한다. 뿐만 아니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문화예술축제, 송고란축제, 요양병원재능기부, 웰컴투시민예술축제, 다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다.

‘어떤 취미든 끈기를 가지고 오래하는 게 중요하다. 같고 닮아야 빛이 나고 실력을 어디서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끼리 믿고 감싸주는 끈끈한 우정도 필요하다’는 옹골찬 회원들의 북 두드리는 소리가 활기차다.

◇ 문 의 : 난타 동아리 옹골찬(031-408-83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이야기하다

안산시평생학습관 “시민환경학교, 안산을 부탁해!”



안산시평생학습관이 2018 글로벌민주시민교육 ‘시민환경학교-안산을 부탁해!’가 진행중이다.

각 분야의 환경전문 교수진을 초청해 시민과 함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한 시민환경학교는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지난 4월 5일, 서울대학교 이정재 명예교수는 ‘생태적 삶을 통한 행복 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철학과 삶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철학과 삶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 걸까 싶어 호기심어린 눈으로 경청하던 교육생들은 점차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사를 내뱉으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이정재 교수는 “삶에는 철학이 필요하다. 타자와 협력하며 사는 관계 속의 생태를 이해하고, 생태적 삶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시민연대 활동가 마이금 씨는 “생태를 철학과 연관지어 설명해주는 강의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음악의 메커니즘을 예로 들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환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좋았다”고 했다.

12일 ‘기후변화, 우리 아들 딸 이야기’, 19일 ‘건강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이어 4월 26일은 ‘연료, 미세먼지 없는 에너지’, 5월 3일은 ‘스마트시티 안산’, 5월 10일은 ‘오늘날 환경의 위기상황’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평생학습관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글로벌민주시민교육’으로 시민환경학교 이외에도 ‘생활법률강연-시민로스쿨’을 운영한다.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는 안산준법지원센터와 연계해 법무부 소속 현직 변호사가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준다.

하반기에는 최대한 박사를 초청해 연극을 배우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사회극을 활용한 시민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 의 : 안산시평생학습관(031-409-1877)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사진_김진국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공모

안산시는 2019년 시 예산 편성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제안사업 집중 공모기간을 운영한다.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집중 공모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사업은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현안사업,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회합을 위한 지역 특색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다. 제안된 의견은 성격에 따라 지역회의에 의제화되어 숙의와 토론과정, 부서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2019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사업 제안은 안산시 예산공개시스템(<http://fin.iansan.net>)을 통하거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또는 이메일(hrpotato1026@korea.kr), 팩스(031-481-3189)로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주민 여러분의 제안이 안산을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며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덕주 예산법무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안산 시민 누구나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제도인 만큼, 제안사업 공모에 다양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시 예산법무과(031-481-302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단원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자!”



지난 1월 말 안산단원경찰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현장디자인팀을 구성, 주민들 대상 체감안전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 수차례 현장진단을 거친 후 작은 무질서라도 방치라면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해 기초질서 확립, 환경정화 활동,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고자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란 민·관·경(民·官·警)이 함께 해당구역을 깨끗이 정비하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무질서는 엄정히 단속하여 깨끗한 지역으로 바꾸어 범죄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공동체 예방치안)’에도 맞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0일에 합동으로 총력 캠페인을 실시했다. 외국인협력단체인 다문화POL 방글라데시 대표는 “경찰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정비활동을 하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버리고 조심할 것 같다”며 “경찰의 이런 활동이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4월 20일에는 다문화안전경찰센터에 ‘우리동네 순찰대’라는 현판을 걸고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비전선포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경찰과 함께 치안을 움직이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도록 다문화 대신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6월까지 주민들에게 기초질서 인식을 위해 캠페인 및 단속 활동에 매진하고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자정운동으로 유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도 ‘거리가 깨끗한 안전, 범죄가 깨끗한 안전한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원곡동 일대에 경찰청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진단,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범죄취약지역에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어두운 골목길을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치안인프라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 문 의 :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031-8040-0143)

안산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유관기관 및 시민참여 속에 지진발생 복합재난 대응훈련



안산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에 안산시는 재난상황관리반 등 총 13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3회에 걸쳐 훈련 기획회의를 개최하며, 훈련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난대응 역량 및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재난대응 훈련인 만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중홍보기간(4.13~5.18)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광판, 안산시 SNS 및 블로그, 지역방송,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시

스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5월 14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재난 기관대응 수칙 숙달훈련을 시작으로 15일 오전에는 토론훈련을, 오후에는 초지동 신안산대학교에서 지진발생 복합재난 대응 중점훈련을 실시하며, 16일부터 18일까지는 25개동에서 지진대피훈련을, 민간기업 및 위·수탁시설은 화재대응과 대피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15일 중점훈련은 복합재난 훈련으로서 초지동 신안산대학교 내 연구시설 붕괴와 화재로 다수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화재진화 살수작업 중 유해화학 물질이 하수구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진, 화재의 신속한 대응능력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성공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165)

우리아이 캠페인

우리 아이입니다!
남의 아이 아닙니다!



주변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우리아이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산상록, 단원경찰서가 함께하는 공공소통 프로젝트입니다.



독자
수기

나의 최악의 날. 나의 최고의 날!

2018년 3월 9일, 금요일은 계속해서 악몽을 꾸게 하는 내게 최악의 날이자 최고의 날이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부지런히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하였다. 내일은 주말이니 실컷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게 운전을 했다.

그때 ♪띠리리리 울리는 전화벨소리~ 조수석에 있는 폰을 보며 누가 아침부터 전화를? 한 사이 '쿵!', 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아 버렸다.

아 ~ 온통 멘붕상태인 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암전히 주차되어 있는 남의 차를 손상 입히고, 10여년을 함께한 나의 애마가 박살이 났다.

아침의 들뜬 기분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진을 찍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처리를 했다.

무사고 7년으로 green card도 받은 나였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작은 사고는 종종 내긴 했다. 처음엔 '어머, 제법 운전 하나 보네'. 하던 남편이 '조심해서 안해?' 라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남편은 '모든 남편이 아내가 전화 오는 걸 두려워 해. 또 사고 낸 건 아닌가? 내 친구 **는 새 차를 사 줬더니 주차한다고 박고, 브레이크 잘못 밟아 박고,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며 안전운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대형사고. 내 차가 오래 된 것도 있겠지만 경차라 피해가 컸다. 무사히 보험처리 잘 됐다. 문제는 10여년을 타고 다닌 내 차를 폐차 할 것인가?



수리 할 것인가? 그 돈을 주고 수리하기엔 꺼림직하고 새차를 사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사고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차를 몰기 무섭기도 해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생각도 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럴 때 일수록 차를 몰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롱면허가 된다고 하며, 그렇지 않아도 차를 사 주기 위해 적금을 몰래 들었다"고 말했다.

"여보! 고마워. 정말 조심조심 해서 탈게. 이번 사고로 나의 경솔함을 되돌아보고 초보 운전의 마음으로 오직 운전에만 집중해서 잘 타고 다닐게."

가부장적인 어투로 억박지르거나 언제나 부족한 나로 인해 여러 가지 신경쓰게 해서 가끔은 미운 소리도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 남편. 3월 9일은 내게 최악의 날이 될 뻔 했지만, 남편의 큰 선물로 최고의 날이 됐다.

• 박정화 (상록구 안산천동로 1길)



외국인
수기

배움의 길

내가 글쓰기를 배우는 이유는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아는 것이 없어서 앞으로가 걱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 분들이 어떻게 사는 지 알게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다. 애들에게 더 좋은 엄마,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나는 캄보디아에서 온 유혜림이다. 캄보디아에서 살 때는 형제들이 많아서 가난한 형편에 중학교까지만 다녔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옛날 캄보디아 사람들은 애들도 많이 낳았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10남매나 낳으셨다. 우리 부모님은 다 큰 딸, 아들이었고 나도 큰딸이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숙제를 봐 줄 사람도 없었고 늘 숙제가 있으면 옆집이나 이웃에게 봐 달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 심정이 어땠을지 알 것 같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셨을까, 하고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글쓰기를 배우고 있다. 글씨기 선생님께서 꿈이 뭐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가족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왜 내 꿈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꿈을 가지려고 한다.

부모는 거울이고 그 거울을 보고 애들은 따라서 배운다. 내가 배워야 아이들에게 말할 때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동네에 있는 나의 주변사람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삶에 만족한다. 너무 먼 미래를 보다 보면 지금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나도 아주 잠깐 그랬지만 지금부터 나는 내 행복은 내가 챙길 것이다. 사랑, 행복, 건강, 노력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 글은 안산시문화지원본부에서 발간한 '수기집'에 실린 것으로, 일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지만, 글쓴이의 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함.)

• 유혜림

안산시여성합창단 단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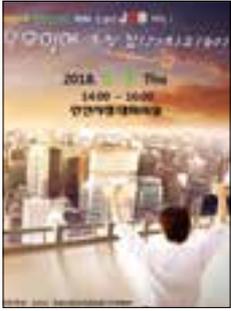


안산시에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합창으로 아름다운 나눔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열정과 재능이 있는 「안산시여성합창단 신규 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 : 소프라노/메조소프라노/알토
- ◇ **모집인원** : 각 파트 00명(무보수 명예직)
※ 안산시여성합창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응시자격** :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60세 이하 여성
-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또는 부착)
※ 응시원서 서식은 홈페이지 내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 ~ 2018. 5. 31. / 9시 ~ 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whaligus@korea.kr)
-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 및 새소식란 참조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개최일시:** 2018. 5. 3. (목) 14:00 ~ 16:00
-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취업을 원하는 4050 중장년 구직자
- ◇ **주최/주관:** 안산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제공 /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마련
- ◇ **문의:**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882)

2018년 여성청소년 대상 무료 예방접종

- 사랑하는 딸에게 무료 예방접종으로 『암 예방』 선물하세요!
- ◇ **대상:** 만12세 여성 청소년(2005.1.1.~2006.12.31.출생)
 - ◇ **내용:**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자궁경부암 예방)
 - ◇ **장소:**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 **비용:** 무료 (6개월 간격 2회 접종)
 - ◇ **문의:** 상록수보건소(031-481-5892) / 단원보건소(031-481-3515)
-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지정 의료 및 접종백신 확인 가능

전국청소년 뮤직페어



- ◇ **일시:** 2018.5.19.(토) 14:00
- ◇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야외공연장
- ◇ **접수기간:** ~4.30. 17시
- ◇ **참가대상:** 전국 중·고생 및 청소년
- ◇ **주요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요, 뮤지컬넘버, 댄스 등 경연대회
- ◇ **문의:** (사)안산예총 사무국(031-485-3844)

단원보건소 임신부 무료 건강관리안내

- ◇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안산시 관내 임신부
- ◇ **장소:** 단원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 **내용:** ① 모성검사: 임신12주 이전(B형간염, 풍진,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② 영양제 지원 (엽산제: 12주 이전 / 철분제: 16주~분만예정일)
③ 임신성 당뇨검사(24주~28주, 금식 12시간 이상 필요) 검사가능 시간(오전 9시~10시30분 / 오후 1시~4시30분)
- ◇ **문의:** 단원보건소(031-481-2552)

한양대학교 ERICA

국제교육원 여름학기 신입생 모집

- ◇ **대상:** 국내외 거주 외국인
- ◇ **내용:** 수준별 한국어 교육(10주 과정)
- ◇ **신청기간:**
 - 비자가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 비자가 없는 경우: 5월 15일까지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 홈페이지(<http://ericaie.hanyang.ac.kr>)에서 국가별 필요서류 확인
- ◇ **문의:** 한양대학교 에리카국제교육원 (031-400-5847(중국어)/031-400-5842(영어))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채용 박람회



- ◇ **일시:** 2018. 5. 10.(목) 14:00~17:00
- ◇ **장소:** 시흥시 미관광장(이마트 시화점 육교 건너편)
- ◇ **행사규모:**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구인업체 50여개
- ◇ **주최/주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산고용복지+센터, 시흥고용복지+센터,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행사내용:**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부대행사
- ◇ **문의:**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277, 2919)

안산전국여성 백일장

- ◇ **일시:** 2018. 5. 11.(금) 오전 10시
- ◇ **장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내 아고라광장
- ◇ **대상:** 20세 이상 미등단 전국여성
- ◇ **참가부문:** 시, 수필(당일접수 가능, 시제 당일 발표)
- ◇ **참가신청:** 안산여성문화회 (<http://cafe.daum.net/ansanwl>)
- ◇ **문의:** 안산여성문화회 (010-9153-3056, 010-8757-7195)



지구를 사랑하는 날, 나의 삶에서 지구를 지키는 한달!

녹색소비
생활 캠페인
④

1. 교통난 해소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2.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빼기 & LED조명으로 교체
3. 재활용 분리수거 하기
4. 불필요한 과소비는 줄이기
5. 샤워시간 줄이기



나를 사랑하는 일에 하루 30분 투자 어떠세요?!

1일 30분 운동하기

#30분 뛰기

70kg 성인기준
257kcal 소모



#30분 걷기

70kg 성인기준
140kcal 소모



#30분 요가 (스트레칭)

70kg 성인기준
92kcal 소모





책속의 책, 독서하는 즐거움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책이 만든다”



아



고전 독서법

저자 정민
출판사 보림

우리 옛글의 풍부한 내용과 가치를 오늘날 독자에게 새롭게 전하는 역할을 해온 정민 선생님이 자신이 공부해온 고전을 바탕으로 책읽기가 공부이자 삶 자체인 옛 선비들의 지독한 책 사랑과 독서법뿐 아니라, 참 공부에 대한 값진 예문, 예화를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아들 '버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을 빌려 책과 독서의 참뜻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놀라운 발명품 책

저자 브루스코실니악
출판사 비룡소

우리가 읽는 책의 인쇄 기술은 물론 책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을 짚어주는 논픽션 그림책이다. 금속 활자를 만들 때 활자 틀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줄 간격과 글자 간격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책을 묶고 책 표지를 꾸미는 방법은 어땠는지 등을 그림을 통해 쉽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책속의 책

저자 요르크 윌러
출판사 비룡소

몽환적인 세계를 표현한 그림책. 이 책의 주인공 소녀는 책을 선물로 받는데 표지부터 독특한 책은, 책 속의 책 속의 책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다. 소녀는 책 속의 책을 들여다보고, 요술 안경으로도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책 속의 책의 결말을 알고자 책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데... 작가는 소녀가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수록 그 속에 빠져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청 소년



단단한 독서

저자 에밀 파게
출판사 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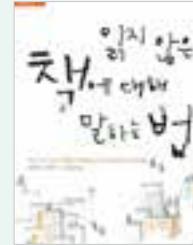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인문학자 에밀 파게의 고전. 1912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후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서법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이다. 이 책에서 에밀 파게가 말하는 독서법의 요체는 '느리게 읽기'와 '거듭 읽기'다. 책을 거듭 읽으면 더 잘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세부와 문체를 즐길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책과 공감하는 독서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의 도서관

저자 올리버 티얼
출판사 생각정거장

「비밀의 도서관」은 문학 작품은 물론 여행서, 과학서, 요리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또 개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허핑턴포스트>의 인기 작가이자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영국의 '문학 덕후' 교수 올리버 티얼은 이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명작부터 지금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품까지, 99권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작품과 작품 사이의 흥미로운 연관성을 소개한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저자 피에르 바야르
출판사 여름언덕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은 비독서를 포함하는 새로운 독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책이다.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온 독서문화와 그에 대한 금기를 되짚어본다. '이런 책은 꼭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독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책과 책, 책과 독자 사이의 네트워크를 파악해 전체적인 지식지도를 그려내는 '총체적 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인



나의 프랑스식 서재

저자 김남주
출판사 이봄

김남주의 번역 에세이. 그동안 저자가 번역한 책들에 실린 '옮긴이의 말'을 모아 엮은 책으로 저자의 젊은 시간의 기록까지 모두 담겨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를 살아오는 동안 저자에게 밥벌이자 삶의 징검다리 같은 것이었던 번역. 원서와 공감한다고 느꼈을 때 번역을 하기에 자신의 이름 석자 그 자체가 되는 번역목표를 살펴봄과 번역가의 번역가다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다윈의 서재

저자 장대익
출판사 바다출판사

현대 과학 이론의 최첨단을 소개하는 장대익 교수의 '다윈 삼부작' 첫 번째 책. 우리 시대의 과학 고전을 소개하는 과학 서평집이다. 인간과 세계, 자연과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던 위대한 과학 고전을 소개한다. 찰스 다윈부터 에르빈 슈뢰딩거, 에드워드 윌슨, 칼 세이건, 리처드 도킨스, 장 회의, 말콤 글래드웰, 제러미 리프킨까지 46명의 저자가 쓴 56권의 책이 시공을 초월하여 만난다.



책공장 베네치아

저자 알레산드로 마르초
출판사 책세상

책의 청년기라 할 수 있을 르네상스, 특히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던 16세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에서의 출판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베네치아는 16세기 초반 유럽에서 출간된 모든 책의 절반을 출판할 만큼 출판 산업을 주도했다. 이곳 베네치아 출신인 저자 알레산드로 마르초 마노는 섬세한 필치로 베네치아의 근대 인쇄 출판업을 묘사하며, 베네치아 거리 곳곳을 살아 있는 듯 생생히 묘사한다.